

경쟁사들 해외서 승전보 울리는데... 해태, 내수에 '올인'하나

국내 제과시장 매년 2% 수준 축소 업계 빅3, 해외사업 성과에 실적 차 "출산율 지속 감소... 해외진출 필수"

국내 합계출산율이 0.8명에 그치고 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자류의 주 소비층인 어린이들도 줄어들자 국내 제과산업이 성장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과업체들이 해외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크라운해태는 내수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크라운해태는 해외사업 비중이 10% 이내로 제과업계 3사 중 가장 낮다. 중국과 러시아에 스낵류를 수출하고 있지만, 오리온이나 롯데제과와 달리 현지 법인-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 소비자인 제과업계 특성상 국내 내수 시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사업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경쟁사들은 이미 해외사업에 전력투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와 내수 시장이 포화상태라 국내에서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



러시아 소비자가 현지 매장에서 오리온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오리온

들다"며 "기업들이 인구 대국이나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를 공략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내 제과 시장은 매년 2%씩 축소되고 있다.

크라운해태가 국내 사업에만 '올인'하면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크라운해태는 올 상반기 매출 4795억원, 영업이익 1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4%(약 200억원) 가량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20% 줄어들었다. 수입 곡물가, 식용유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원가 부담이 늘어났지만, 모든 제과 회사가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경쟁사인 오리온의 경우 판매 가격을 동결하면서도 영업이익을 극대화했다.

오리온은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2805억원, 영업이익 19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0%, 영업이익은 26.3% 성장했다. 이러한 호실적을 견인한 것은 해외사업이다.

오리온 중국 법인은 매출액이 8.9% 성장한 5684억원, 영업이익은 42.7% 성장한 852억원을 기록했고, 베트남 법인은 매출액이 34.4% 성장한 1957억

원, 영업이익은 40.8% 성장한 331억 원을 달성하며 현지 1등 식품기업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오리온의 러시아 법인은 매출이 55.7% 성장한 788억원, 영업이익이 54.0% 성장한 116억원을 달성하며 오리온 전체 법인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오리온의 해외사업 매출은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롯데제과도 해외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2분기 해외 매출은 19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1% 증가했다. 해외 매출 비중은 35%로, 작년 동기 26%에서 9%포인트 신장했다. 해외 영업이익은 1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8% 급증했다.

특히 인도 시장에서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인도 시장에서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점유율은 90%에 달하는 등 압도적이다. 반면 2분기 국내 매출은 37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영업이익은 136억원으로 32.6% 각각 줄었다.

이준영 상명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것보다 해외 시장 공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진만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제과산업의 경우 해외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것만큼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중요하다"며 "건강을 생각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는 것을 반영해 고급화 전략을 카드로 내세우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크라운제과는 34년만에 충남 아산에 신규 공장을 설립, 생산 능력을 키워 내수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크라운해태는 이번 신규 스낵공장 설립에 총 695억원(토지제외)을 투자했으며, 내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주력 스낵제품인 조리풍, 콘칩 등 연간 최대 2400억원 규모의 과자를 생산하게 된다. 1988년 문을 연 기존 아산공장의 생산설비를 신규공장으로 이전하고 최신 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적용한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공장 신설을 통해 생산성을 키우고 물류 효율화 작업을 거쳐 내수 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라며 "당장 집중하는 것은 내수 시장이지만, 향후 해외 시장 공략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식약처 규제개선 의지 확인... 끊임없는 혁신·도전 부응”

KPBMA 제약바이오 CEO 워크숍

현장 규제개선 요구사항 식약처 전달 오 처장 “글로벌 산업 도약 함께할 것”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KPBMA 제약바이오 CEO 워크숍'에는 국내 제약바이오 CEO 6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CEO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해외에서 제한이 없는 치료용 신경정신약물에 대한 의료목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줄 것과, 의약품 외용제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를 적용해 유전독성 자료 제출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비대면 흐름을 감안한 디지털 마케팅 등 의료기기 광고 심의 체계 개편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약바이오 CEO들이 2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KPBMA 제약바이오 CEO 워크숍'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과 신약개발 및 허가 관련 규정 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제약바이오기업 대표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산업계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날 전달한 건의사항들이 현장에서 규제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도

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고, 식약처는 혁신과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는 길에 식약처가 함께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오 처장은 '국제 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규제'를 식약처의 목표로 제시하며 ▲신기술에 맞는 새로운 길 제시, 미래 도전과 혁신을 촉진 ▲규제단계의 가속 페달을 밟아, 제품화 성공을 넘어 글로벌 진출 견인 ▲상시 혁신체계를 통한 불필요한 빨간불 제거, 현장

체감형 혁신 주도 등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가치와 회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은 "규제과 학부처인 식약처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선다면,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업계는 식약처의 의지에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아이스 ‘꽃감·강정’ 맛보세요”

메스킨라빈스

SPC그룹이 운영하는 메스킨라빈스는 추석을 맞아 전통 간식을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아이스 모찌 크림치즈 꽃감'과 '아이스 강정' 2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제품 '아이스 모찌 크림치즈 꽃감'은 부드러운 크림치즈와 감 아이스크림 조합에 달콤한 꽃감 리본을 두른 꽃감 모양의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 강정'은 전통 간식인 '강정'을 고소한 견과류와 달콤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코팅을 입힌 볼 형태의 디저트로 재해석한 것이다. 초콜릿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아몬드 토핑을 더한 '아이스 아몬드 강정'과 달콤한 카라멜 아이스크림을 땅콩으로 토핑한 '아이스 땅콩 강정' 등 총 2종으로 마련했다. /신원선 기자

교촌치킨 추석맞이 주문앱 이벤트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추석맞이 주문앱 이벤트를 마련했다.

교촌은 오는 12일까지 교촌 주문앱에서 신메뉴 '교촌블랙시크릿오리지날'과 '교촌블랙시크릿순살' 2종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 금액의 10%를 되돌려준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및 9월 신메뉴 '교촌블랙시크릿'을 즐기도록 하는 주문앱 고객들을 위한 시크릿 할인 혜택도 마련했다.

이달 30일까지 교촌 주문앱에서 신메뉴 '교촌블랙시크릿오리지날'과 '교촌블랙시크릿순살' 2종 주문시 시크릿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통제 어려운 불안, 진료 필요한 질병일수도”

평소에 느끼는 불안함, 얼마나 과도해야 '불안장애'가 되는 걸까. 전문가들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통제가 어려운 불안을 느끼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질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DSM-5-TR 진단기준에 따르면 ▲일상에서 과도한 걱정이 6개월 이상 지

속되고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고 ▲근긴장, 집중력 저하, 불면 등 불안과 관련한 신체적 증상이 3가지 이상 나타나며 ▲이로 인한 직업적, 사회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 즉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들이 약이나 의학적 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 때 '불안장애'로 진단한다.

이대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담



교수(사진)는 "불안장애는 임상에서 과소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불안장애 동반되는 다른 신체증상 때문에 다른 과의 진료를 받다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불안장애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 도움을 받는 환자들이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불안장애로 진단되는 경우,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 상담 치료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허 교수는 "불안장애 환자들은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에도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가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약을 줄이면 '반동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전보다 불안 증상이 더 심하게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경 기자